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3

강 고린도전서 3장과 4장,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3강, 클로이와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입니다.

글쎄요,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여행해 보세요. 우리는 7번 노트에 있고,
우리는 계속합니다. 저는 57페이지부터 시작하여 검토하고 이 장의 끝까지
58페이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특히 2장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장들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다 읽는 데 영원히 걸릴 수도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권위와 특히 2장에서 나오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 그러니 고린도전서를 읽는 이 여정을 여러분이 꼭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평범한 교실에 있고 제가 가르치기 위해 교실로 걸어
들어갔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고, 보통은 수업에 누군가 있거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기도를 미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강의를 감사하고 스스로 조사할 때 기도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런 패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기도로 씻고 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해석이라는 힘든 일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불완전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고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면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럼, 57페이지로 가보죠. 우리는 페이지 중간의 B 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클로에의 가족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한다고 보고한 분열의 문제를 평가합니다. 저는 이 분열의 문제가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듯이 교사와 학생, 권위 있는 교사와 공동체 간의 경쟁 문제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그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분열을 만든 특정 교사들에 대한 경쟁심과 충성심으로 사물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논리가 무엇인지 추적하기 위해 여기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 문제와 분열의 문제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가짜 인간적 지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설명했고, 아마도 당신이 브루스 윈터의 자료 중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로마 고린도의 일부였던 이해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견해의 경쟁으로 인해 그 자체로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26세에서 31세까지 인간의 자존심을 다룹니다.

고린도인들은 개종했을 때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초기 고린도 교회에는 강력하고 아마도 부유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범주에 속했던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전진하는 것은

힘이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58페이지의 세 번째 사항은 분열된 태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원래 한 사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왔을 때 로마 고린도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문화권에서 기대하는 교사의 기대에 따라 옷을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약해 보였지만, 그의 약함 속에 그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다음, 58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러한 분열을 다루는 네 번째 항목은 분열인데, 이는 바울의 메시지의 출처와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저에게 26에서 16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반발에 대처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바울을 사도로 존경하지만, 그들에게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구조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바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밀어내고, 바울과 의견이 다르고, 바울이 사도로서 받을 만한 존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기독교에 대한 이 모든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우리 나머지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텔벗은 이 시점에서 바울을 지중해 교사 모드로 몰아넣었고, 곧 보게 되겠지만 26-16장의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 난해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로마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계시의 각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진실을 공유했고, 고린도인들은 그것이 권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고 그들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6장 16절에서 복음 지혜의 본질을 밝히지만, 특히 26장 9절에서 밝힙니다. 제 개요의 진행 과정에서 제가 본문에서 26장 16절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지만,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58쪽 하단에서 바울은 복음 지혜의 본질을 밝힙니다. 그리고 네, 꼭 읽어야겠습니다. 6~9쪽을 들어보세요. 이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1 NIV를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지혜는 1장에서 4장까지 21번 나옵니다.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당신은 어떤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까?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시대의 지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이제 지혜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대의 통치자들, 곧 허무하게 될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 암송, 숨겨진 신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아무도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우선, 9절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 적용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시록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에서 9까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

하는 열쇠는 일부 대명사와 선행사를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6절까지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대명사가 2인칭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인 여러분.

You, you, you. 하지만 2에서 6에서 16으로 넘어가면 그는 1인칭 복수형인 We로 전환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2장 6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장 6절에서 16절의 대명사가 주로 바울과 그의 공동체, 주로 사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진정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사건이었고, 이 구절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6에서 16까지의 we를 사도 공동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저 누구나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의 반발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왜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메시지를 정의할 권한을 어디서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공동체와 공유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4장의 흐름 속에서 그는 이 분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적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와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한 반발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장에서 4장 중간인 6~16장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훌륭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적 진실입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용어인 계시를 사용하더라도,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래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1인칭 복수, 1인칭이 구절 전체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6절, 7절, 10절, 12절, 13절, 16절.

앞이나 뒤에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2인칭 대명사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공동체이지만, 이번에는 우리 입니다 .

그리고 저는 고린도 공동체, 즉 사도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3:1과 2:6은 서로 관련이 있는 듯하며, 2, 6~16의 대명사가 바울과 그의 종류, 즉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수단, 또는 주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며 바울의 동료들인 우리에게 대한 겸손한 예의를 갖추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 하지만 결론은 바울이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여기 서서 메시지를 정의할 권리, 메시지를 선포할 권리,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반발하지 않기를 기대할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또는 지혜의 본질은 59페이지에서 영적인 자나 성숙한 자만이 6절에서 받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숙한 자 가운데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장 6절에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 만한 한 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 가운데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teleos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 Teleos 에서 teleology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는 미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정 단어에서 telescope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의 끝은 성숙한 사람들 사이의 성숙입니다.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NIV의 버전은 성숙한 자들 사이에서라고 해요. 보세요, 영적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보관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버전의 연속체와 그것들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장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NRSV를 볼 때, 죄송합니다, 그것을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꽤 확신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같은 단어인 성숙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킹 제임스 버전은 영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2:6에서 특정한 고정관념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그것은 성숙과 완전한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은 2:15에서 조금 후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 지혜의 본질은 7절에서 9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지혜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59페이지 중간에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7절에서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 속에서 말하고, 계시된 것을 말하고, 등등입니다.

개요에 어떤 종류의 지혜가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은 신의 지혜입니다. 차트의 문단을 주목하세요. 그것은 신비 속의 지혜입니다.

머스테리온은 신약에서 예수와 함께 그 첫 세기 동안 발전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나타내는 기술 용어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실체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교회로의 전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실체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밝혀진 신성한 비밀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춰진 신비이며, 신이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세상의 기초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지만,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던 신비입니다. 지금, 여기서 통치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지식인들을 말하는 수사적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흥미로운 부분은, 흐르는 대로,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진술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대로, 그리고 제가 잠시 전에 지적했던 흥미로운 작은 구절이 나옵니다. 눈은 보지 못했고, 귀는 듣지 못했고,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공식 번역처럼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종종 인용되고, 끌어내어 천국이라는 개념에 적용되지만, 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뒤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인식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식론.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아는지, 우리 지식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에 대한 큰 단어입니다. 글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세요.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이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눈은 보지 못했다. 경험적 길이 있다: 눈. 귀는 듣지 못했다, 또 다른 경험적 길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인식론의 형식적 이해에서, 지식의 근원에서, 당신은 감각, 눈, 귀, 촉각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의 근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있을 수 있고, 갑자기 플로리다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를 보기 위해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젖고, 오, 비가 온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붕에서 소리가 들리면, 나는 소리에서 비가 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측면, 감각, 이성, 인간이 지식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경로입니다.

세상의 인간 통치자들은 감각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자신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9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늘은 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창공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보여준다 . 낮이 낮으로 말을 전한다. 밤은 그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무신론자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신론자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신이 있다면 나를 죽여 버려라 하고 거만하게 살아서 떠납니다. 아시다시피, 하늘과 우리 우주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우주의 경이로움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으며, 이것이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9절의 끝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은 볼 수 없고, 귀는 들을 수 없으며, 경험적 방법이나 감각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성도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식론의 또 다른 측면은 형식적으로 직관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직관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미에서 직관은 어떤 종류의 신성한 입문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설명될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맥락에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참조입니다.

다음 단원의 10절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딜레마에서 구해줍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트에 차트를 포함했으면 좋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손을 상상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 수는 없고, 여기로 나갑니다. 열린 삼각형.

좋습니다. 신이 들어왔고, 이 열린 삼각형은 모든 창조된 현실을 나타냅니다. 존재하게 된 모든 것.

바로 여기 영원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명령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지? 감정의 나무가 아니었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어. 신이 만든 나무였어.

그 나무에서 먹지 마라. 한 가지 명령만으로도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겼고,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이 동산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대결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신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것이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아마도 창조 주간과 아담과 이브의 창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역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역사는, 하지만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돌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며, 그것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아담과 이브가 원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적절하게 갈 수 없게 합니다.

타락은 왜곡의 문제, 편향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글썄요,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런 것들, 세상이 모르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이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바울의 변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고린도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확립하기 위한 그의 변명입니다. 바울이 권위자이긴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권위입니다. 왜 그것이 권위일까요?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사도 공동체는 계시된 진리가 세상에 온 수단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신을 바라볼 때 왜곡이 일어나고, 편향이 일어나지만, 신의 말씀은 마치 삼각형 위에 있는 우산과 같아서 신에 대해 알아야 할 때 신의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간의 왜곡이 있지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의 정신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통합하셨고, 때때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양성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종말까지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경전의 가르침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가 없는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전은 우리의 인식론의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선택권은 다음과 같다. 예수 와 1:1로 24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스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는 영어나 당신의 언어로 말할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24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이, 당신은 심지어 녹음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비디오를 줄게. 네가 우상으로 만들어. 테이프 레코더를 가져도 돼.

24시간.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심지어 테이프 레코더를 가지고도, 또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으로, 그것이 당신이 얻는 전부입니다.

아니면 이거.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당신이 상식이 있다면, 당신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과 투쟁을 감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테이프에 24시간 분량이 있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녕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당신은 답을 얻지 못한 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서 답을 얻을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증거 텍스트가 아니라 사고방식, 세계관,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길을 잃습니다.

성경이 중요한가요?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문화에서 성경은 두드러져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문화권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숭배라는 용어에 집착했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숭배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누군가가 이상한 방식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친구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정당성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윤리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2장 6-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열은 세상적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권한이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계시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용어로 옮기는 수단이며,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9절에서 딜레마를 겪습니다. 딜레마는 10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10-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혜가 신성한 계시로 주어졌다고 말한다. 10-13절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10a를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입니다. 2011 NIV가 10b의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은 모든 것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0절 b.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대명사의 제한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가 될 특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전달되는 수신자이자 매개체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영이 가르쳐서 영적 실체를 설명하는 말씀은 영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제 10에서 13까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지혜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계시의 수단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조직하신 수단입니다.

우리는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책들의 저자들과 함께 한 동일한 종류의 활동에서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빌레몬서나 요한 2서나 3서와 같은 책에서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 책들의 사도들은 그들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특정 시기에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알고 계셨고, 신은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율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그것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정보는 정확한 방식으로 전달되므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기독교의 성경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의 산물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하게 그것을 조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이나 영감을 받았다는 단어에 대해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울의 작품이 성경이 되었을 때 영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품입니다.

영감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제, 신은 사람을 통해 그것을 하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바울이 쓴 모든 것이 성경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찾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것은 바로 그 항목들이고, 바로 그 항목들입니다. 그 항목들은, 제 동사를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조직하신 결과물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신께서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모든

주석은 이것을 매우 수수께끼 같은 구절로 보고 우리가 풀기 힘든 구절로 봅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이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도들은 인간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밝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이 가르친 말로. 글쎄, 영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영의 수업에 갔을까? 아니요. 그것은 그들이 편지를 받아쓰거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조사했다고 말했을 때의 수수께끼 같은 과정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는 요한복음 3장에서 구원을 위해 사용된 것처럼 그 명칭을 사용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매개체를 통해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방대한 증거, 특히 신약성경을 살펴보세요. 5,000개가 넘는 사본과 두 개의 사본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어의 동의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철자가 틀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달을 하는 비문인 인간이 있고, 그들은 때때로 어리석은 실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읽고 싶다면, 신약성서의 본문인 브루스 메츠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메츠거는 신약의 전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위 있고,

모든 목적에 적합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맹목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의 다른 어떤 문학 작품보다 성경에 대한 더 많은 학문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시카고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러 차를 몰고 가곤 했습니다. 그곳 도서관에는 600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컨소시엄 도서관이었습니다.

이건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에요.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늙었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파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니켈 복사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니켈을 줄지어 가지고 다니며 논문과 학위논문과 논문과 그런 종류의 것들을 쓰기 위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600만 권의 책. 루터교 신학대학, 시카고 신학대학, 장로교 학교인 매코믹 신학교의 컨소시엄이었습니다. 모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편의를 위해 모든 책을 한 도서관에 두었습니다.

와, 정말 도서관이네요. 마치 책더미를 가지고 지하묘지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향기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밌었어요. 글썄요, 우리는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연구와 기술 연구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선반에 놓인 거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르친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 영에 의해, 그 구절 내에서 영을 생산 단계에 넣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볼 수 있다면, 제 눈으로 아주 빨리 무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NIV에서 번역된 대로 읽으면, 영에 의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영의 가르침입니다.

영은 소유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그리스어 수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격은 가장 해석적인 격 중 하나이며, 적어도 소유격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주관적 소유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유격 명사가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인한 가르침입니다.

문법가인 CDF 뮐러는 이것이 그가 신약성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관적 소유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성경은 영의 산물이지만 인간의 도구를 통해 나온 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본질의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조차도 전체 사건을 조정하셨고, 그것을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1세기에서 3세기로 고립에서 벗어나면서 정경을 하나로 모으는 섭리로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와, 정말 많죠? 바울은 지혜가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산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은유를 사용합니다.

시험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영은 신, 삼위일체를 탐구하는데,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 우리를 탐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 접근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계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성령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관통합니다. 삼위일체의 일원인 성령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는 것보다 신성한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의 정보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지만, 이 모임에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풀어놓은 이 신비에서, 그것은 성령이 지휘하고 운영한 특별히 신성하고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비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과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채로 버려졌다가 셋째 하늘로 불러 올라간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조각조각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몇 가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바울의 능력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0페이지, 맨 위에서 자신의 말과 가르침이 실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에게 온 거지? 그는 그렇지 않았고, 그는 자동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어.

신이 그에게 지시한 것일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주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가르침이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확언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은 방법을 확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어 학생이라면 더욱 좋은데, 왜냐하면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난해하고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진 말로가 아니라, 영으로 가르쳐진 말로, 영적인 실체를 영으로 가르쳐진 말로 설명합니다. 2011 NIV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도 들어보세요.

글쎄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합니다. ASV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단어들과 결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도들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ASV의 여백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합니다. NASB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말을 결합합니다. NIV 원본은 영적인 말로 영적인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번역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르친 단어로 된 영적인 실체입니다. 원래 NIV의 여백에는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RSV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합니다. 여백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언어로 해석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말. 진실을 말로 옮기는 것. 글쎄요, 왜 이런 다양성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13절에 이 두 용어가 있는 문제적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형용사로 *pneuma*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pneuma*, *pneumatos* . 그리고 *pneumatikos* 가 있습니다 . 형용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것은 남성적이거나 중성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가요, 아니면 단어나 사물인가요? 대부분은 해설에서 단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영상 설정에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숙제를 하도록 격려할 뿐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 주석 배열을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세 번이나 네 번 읽을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으로, 당신은 그 해설들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나 본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장이다.

그게 그 주장에 대한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시험관에 넣고 설명하려고 할 때, 당신은 이제 인간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성한 영역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그것은 신의 기적입니다. 순수한 지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트랜스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신에서는 사도들이 정보와 지식의 기반에서 의식적으로 한 일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보호하셔서 청중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우리가 은행에 가져갈 수 있는 서신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합니다. 그것들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우리는 우리 삶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진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무거운 텍스트, 무거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하이라이트만 짚어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세 번째 측면에서 바울은 영적 진리의 적용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영적 진리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이 사도 공동체와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가져다 주신 독특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의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2011 NIV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영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글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가르쳤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즉 우리, 당신과 나, 그 공동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난해한 비밀도 없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영감받은 주석이나 영감받은 설교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풀어내고 그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위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자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추구했는지의 관점에서 우리를 조금 더 살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쉬운 길을 택했습니까? 사회 문화적 길을 택했습니까? 당신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과 그의 길에 대한 이해에서 결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이 응용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이걸 살펴보죠. 좋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60페이지 1C,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는 이 사람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사도들의 기독교 신앙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둘 다 사실입니다.

이 특정 맥락에서 그것은 무엇인가? Fitzmeyer는 이 특정 맥락에서 사도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항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두드러진 교사와 제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과정을 가진 고린도 신자들은 사도적 가르침에 저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 변화에 대해 울려 퍼지며, 보세요, 당신은 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사도 공동체에 이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그리스도인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독립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적 진실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큰 말이고, 저는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영적 진실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도 나오는데, 거듭난 사람이 영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사도적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2:15에서 비영적인 사람이 모르는 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글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가 누구의 글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80년대 중반에 쓰여진 기사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유명한 설교자가 쓴 글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가치 있는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법.

이것은 기독교 청소년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불신자, 신자 등등을 뜻합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작가는 거의 대문자로, 아니,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 2:14를 이것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 그것은 학문적 과정이나 경험적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에 대한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별집을 열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 형제가 극도로 헌신하는 성경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역사와 언어와 이야기와 서신과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풀어야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 중심입니까, 아니면 독자 중심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 대한 독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기독교 독자가 아니라면 성경은 의미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그것이 완전히 멍청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참석했거나, 전임 교수로 재직할 때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비 계정도 없고, 꽤 비싸서 예전처럼 직장 회의를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문학 협회 연례 회의에는 갈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3중 모임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협회, 성경 연구 기관, 그리고 성경 문학 협회. 이 협회들이 모이는 것은 적어도 7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모임의 기술적 측면에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TS와 IBR은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BL은 혼합된 가방입니다.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는 일반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전 세계의 모든 대학 프로그램을 대표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고, 실제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언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고고학을 가르치고, 지리를 가르치고, 책을 가르치고, 등등을 가르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주요 대학, 특히 미국과 영국에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꽤 유명합니다.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등등,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논문을 듣고, 책을 사곤 했어요.

그게 제가 간 주된 이유 중 하나예요. SBL 프로그램에는 체육관 층 4~5 개에 출판사들이 책을 전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책들은 모두 종교에 대한 책이지만, 특히 성경을 풀어내는 것에 대한 책들이요.

물론 다양하죠. 그리고 저는 세미나에 가서 제가 사용할 책의 저자 중 몇몇의 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저는 ETS, IBR, SPL과 같은 이 학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출판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사전, 사전,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여러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저에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그 본문을 풀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해 줄 것입니다.

원어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과 모든 해석 문제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그냥 앉아서, 와, 나도 그렇게 깊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더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배우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수백만 개의 해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문학 교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문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내가 아는 많은 보수적인 성경 교사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글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독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그 의미는 객관적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거나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여러 면에서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언어와 역사에 대해 말해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의 도서관을 제공했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 작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땅과 시대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전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묻는 사람들을 폄하할 뿐입니다. 글썄요,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글썄요, 그것은 그저 종교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종교의 역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성경이며,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글쓴이는 모르게 성경의 객관적인 본질을 훼손하고 성경 자체를 훼손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되면 기절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 가르침이 객관적이지 않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비로운 책이지 진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확실히 신비가 있지만, 신비를 갖는 것과 신비로운 것은 다릅니다.

그건 당신에게 꽤 깊은 세계관적 생각이예요. 아마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성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보다는 감정적인 고조를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래하고, 덜 설교하세요. 글썄요, 판단은 당신이 내리세요. 저는 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그것을 밝히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사도적 그리스도인에게 저항하는 사람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진리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설명할 독립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얻으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회심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며, 우리에게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당신의 게으름과 근면함의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일하는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Pneumonic은 신약에서 여섯 번 사용되었습니다.

pneumatikos가 쓰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제가 여기서 약간 머뭇거리는 이유는 제가 당신의 노트에서 그 특정 노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콘코던스에서 형용사인 pneumatikos를 찾아볼 수 있고, Gingrich나 BDA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Bauer, Arndt, Gingrich, Danker 사전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 맥락에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영성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본문과 우리의 일치로 판단됩니다.

영성은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윤리와 일치하고,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이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사람의 질과 관련하여, 누가 영적인가? 성경 전체에서 누가 영적인가에 대한 답은 네 가지 본문뿐입니다. 그 중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 중 몇몇은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2장 15절과 3장 1절에 주의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NIV에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공식적인 동등 번역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며,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4장 37절과 38절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본문 다음에 영적인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란 무슨 뜻인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당신의 일치하는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한 면에서는 영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부 영적인 것이거나 전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강점이 있고 ,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교회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강해서 다른 사람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예를 들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분께 순종하는 것, 대명령을 성취하는 것에서 서로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영적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옛 킹 제임스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NIV에서는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보셨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맥락과 특히 이 경쟁심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관습을 통해 그것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망쳤습니다. 바울의 결론적인 확언은 16절에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40:13을 인용하여 신성한 지혜의 본질을 확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NIV가 있다면, 그것은 시적 구절로 옮겨져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타워즈를 기억한다면, 여기서 저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할 수 있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스타워즈 영화에는 커크 선장이 있었고 , 스팍이 있었습니다. 스팍은 뾰족한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성에서 온 불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팍이 마인드 멜드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는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벌컨 전이를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당신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듯 모든 것을 그 안에 펌핑합니다.

변환 시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받지만, 진행하면서 얻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는 초기 패키지를 제공했지만, 이제 나머지 패키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현재 세상에서 컴퓨터 패키지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가르쳤는가? 이사야의 답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구절의 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바울? 계시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기초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끙끙거린다거나 감정적인 경건을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달콤한 생각을 한다거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한다거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냥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즉시, 정확하게, 철저하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걸 들어가서 처리해야 당신에게 건전한 조언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결국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중요해요.

그것은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과 우리가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들의 삶에서 관련성 있게 만드는 의미에서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책임을 맡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일이 많아요.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할 일이 많습니다. 게으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교회에 은혜를 베푸세요.

중고차 팔러 가세요. 장관 노릇 하지 마세요. 게으른 놈들이 벌써 충분히 많잖아요.

우리는 숙제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했듯이, 내가 당신을 가르쳤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의 길을 계속하려면 엄청난,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히 마음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생각해야 하고, 생각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생각하고 이 구절에 대해 읽을

때, 당신은 교회에서 교사가 되는 그런 종류의 직업, 그런 종류의 부름에 헌신하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꽤 크고, 꽤 굉장하고, 꽤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일을 하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3강, 클로이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입니다.